

大學評價에 參與하고자

朴 鍾 哲

(崇田大 國語國文學科)

‘評價’라는 용어가 주는 당혹감

이러한 글을 쓴다는 일이 비단 나에게만 거북한 것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大學의 現場을 논하기에는 대학에서의 경험이란 것도 일천한 상태이고 보면, 대학이 어떠한 것이어야 마땅하다는 확고한 信念마저 서지 않은 필자의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현장에 대한 체험을 말해 본다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근심스러운 편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大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실제 많은 大學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것대로 또한 大學의 한 斷面을 말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大學評價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을 몇 가지만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대학평가라는 것을 위해 길을 떠나면서 당혹스러웠던 점은 ‘評價’라는 用語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에서 비롯하는 것이었다. 일상적인 語法에서 ‘평가’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무엇에 대해, 어떻게’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그와 같은 내포적인 의미가 갖는 現實에서의 反應에는 긍정적이지 못한 국면의 소지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데서 생겨나는 당혹감이기도 하였다.

‘무엇에 대해, 어떻게’는 어렵기는 하더라도 주어진 計劃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던 터리라는 막연한 안도감을 일으켜 주었으나, ‘누가, 누구를’이라는 대목에는 對立的인 意味마저 들어 있어서 그렇게 용이한 일이 되어 주지 않으리라는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아가서 이런 내포적인 의미가 派生시킬 수 있는 심각성을 배제하는 방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必然的으로 겪어야 하는 걱정거리이기도 했다.

앞서의 ‘무엇’이라는 것에도 실상 어려움은 놓여 있었다. 필자가 담당하기로 한 분야는 敎養課程이었는데, 敎養課程이란 모든 대학들이 저마다의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그 방향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서 남겨진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 여러 가지 좋은 方案을 강구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분야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일은 특히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共通의 과제를 논의하는 場

그러나 실제로 대학을 방문하면서, 그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과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필자는 앞서 느꼈던 당혹감이 오

히려 杞憂였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평가에 임해 주는 그분들의 자세가 지나치리 만큼 眞摯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평가를 하는 입장과 평가받는 입장이라는 對立的인 느낌이 전혀 개제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진지함과 열의는 일의 경과를 수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특히 필자의 경우 敎養課程이 안고 있는 실제 문제의 事例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의 성과를 확대시키는 데에도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의 監査와 흡사한 것으로 오인된 것인지, 지나치게 關照적이며 형식적인 면만을 제시하고 문제점은 오히려 감추려드는 대학이 있었는가 하면, 評價過程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그와 관련된 한 개인의 파오로 판단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평가 결과로도움을 받을 사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면한 일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評價 자체에 대한 無用論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평가의 취지가 이해되는 대로 쉽사리 시정되리라 본다. 대학인들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평가는 어느 한 대학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들을 서로 隔意없이 논의함으로써 대학의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共同의 場이지, 일방적인 가치 판단에 의한 대학 사이의 우열 내지는 파오를 논평하거나 지적하려는 것을 그 본래의 취지로 삼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히 지적하여야 할 또 한 가지 문제는 自體分析과 관련된 것이다. 대다수의 대학들의 경우에는 역시 자체 분석을 통해 대학 자신의 현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整理해 보려는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으나, 소수의 대학의 경우는 형식적인 기술로 인하여 필요한 평가를 무용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물론 학기 도중이어서, 대학내의 문제로 몹시 바쁜 시기에 조사가 행해졌다는 점에서 한 가지 변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無誠意나 부당한 경시가 한 대학의 현장을 알아내지 못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大學 發展을 위한 노력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자체 분석의 내용이나 양식에도 미흡한 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대학마다 제 나름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대학의 총체적인 모습을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틀에 맞추어 기술하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評價 作業의 진행이 이제 겨우 3년째라는 시한을 감안한다면 도리어 이러한 시행착오는 앞으로의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평가 작업이 되기 위한 점진적인 改善의 첫 단계가 되어 준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일단 필요한 것이고 지양은 그 후의 일이다. 따라서 발견된 문제점은 肯定的으로 개선될 방안의 열쇠이므로 필요한 것은 이에 대한 마땅한 자세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대학평가는 어느 한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작업일 수도 없으며, 한 대학의 문제점을 指摘하여 그 대학 자체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가치 척도가 될 수도 없다. 오로지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토론과 개선책을 위한 논의의 장소로 마련된 것이다.

敎養教育의 현실과 이상

敎養教育과 관련된 실제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現實과 理想 사이의 괴리 현상이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關照적이어서 大學內의 모든 일들이 몇몇 소수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정이 일방적으로 下向傳達되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것은 그 大學의 학사 업무를 관장하는 몇 사람만의 의견이 그 대학의 모든 운영을 좌우하여 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敎授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으며, 반영될 수도 없으며(반영할 만한 機構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 참석하는 대다수의 敎授들은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동적 교육 자세는 능동적 창조성을

창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능동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는 교육 현장은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교육으로 일관된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大學마다 많은 委員會가 있어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論議할 수 있는 機構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委員會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일 때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財政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모든 教育 프로그램이 훌륭하게 짜여져 있으며, 이제까지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財政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일 때 그러한 계획들은 계획으로만 끝나고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괴리 현상인 것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 환경의 문제와 교수 방법의 문제이다. 專攻科目의 경우는 수강생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敎養教育의 경우 教育環境의 문제는 각 大學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大單位 講義의 非效率性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敎授의 부족, 강의실의 부족 등으로 마지못해 대부분의 敎養教育을 大單位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 講義는 敎授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敎授는 일방적 권위에 의지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식으로 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학생들은 영무새마냥 그것을 수동적으로 되풀이할 뿐이다. 이러한 現象은 教育 그 자체를 非教育的 狀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敎養의 목표란 누군가의 말처럼 “기계적인 人間이나 知識인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깊이 느끼고 생활하며, 행동하고, 내면적인 자아를 확대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배우는 인간다운 全人的 存在로 지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 교양교육의 여건에선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2백 명 심지어는 3~4백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형 강의실에 몰아 넣어 敎授는 일방적인 강의 아닌 강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단편적인 지식을 ‘줍고자 노력하는 것이 고작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양교육과 관련된 우리의 教育現場인 것이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自我를 확대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現象은 敎授나 學生, 모든 大學인들이 敎養教育을 기피하게까지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교양교육은 重鎮敎授가 맡아야

敎養教育의 主體라 할 수 있는 敎授들의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은 大學들이 敎養講義의 반 이상을 時間講師에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時間講師라고 해서 교양강의를 훌륭히 진행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강의로 일관하는 교수보다는 어느 학생들의 지적치름 넓고 열의 있는 時間講師들이 학생들의 知的 慾求를 훌륭하게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敎養課程의 목표가 人間の 내면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自由教育(liberal education), 혹은 人格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眞·善·美의 균형적 완성에 있다면 교양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풍부한 學識과 폭넓은 경문을 겸비한 敎授, 적어도 學問과 教育, 學生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교수라야 이상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각 大學에서도 敎養課程의 담당교수들은 ‘원로교수’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각 大學의 현실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전임교원들의 절대적인 부족과 敎養教育 自體에 대한 기피 현상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전임교원들의 부족은 大學院이나 學部의 專攻 講義를 담당하기에도 벅찰 지경이어서 敎養教育에까지 참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으나 敎養教育에 대한 경시 태도가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大學에서 學科를 책임지고 있는 敎授라면 大學을 졸업하는 學生들로 하여금 일상적

이고 보편적인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서의 文化的, 精神的, 社會的 位置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할 수 있게끔 專攻教育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에서 인간 형성이 전공교육만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급격히 발전하는 科學技術에로의 맹목적 추종이 가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따라서 知的인 誠實性과 함께 비판적 이성을 갖춘 교양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은 大學人 누구나 경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現在의 教養科目들이 특정 學問의 기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敎科目들이란 아직 학문의 성숙도가 낮고, 大學에서의 경험이 日淺한 敎授들이나 담당하는 과목이란 생각은 하루바삐 정산되어야 한다. 교양과목의 성격이 그러하다면 오히려 학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공과목은 그 분야의 전공자인 시간강사에게 의뢰하고, 능동적으로 교양교육의 현장에 참여하여 진정한 교양교육이 되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운영자들은 教育環境의 改善과 아울러 教養課程의 敎科目이 어떤 特定한 專攻의 下位에 속하는 종속적이거나 초보적인 단계를 암시하는 敎科目들로 일관할 것이 아니다. “지능의 힘과 착실성과 종합성과 다방면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능력들을 구사하는 힘과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그들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 人間教育의 敎科目, 특히 文學과 藝術과 哲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敎科目과 專攻과 自己 專攻 이외의 學問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學問 또는 知識의 相互間的 內的 統合(interdisciplinary)을 꾀할 수 있는 敎科目의 개발과 강의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근대 大學은 量的으로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으나, 그러한 大學 人口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 大學의 현실이다. 대학 신입생의 수가 팽창한다면 그에 따른 교수의 충원과 시설의 확충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이

러한 常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는 乖離 현상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사실들인 것이다.

물론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다. 교수의 충원이란 大學의 요구대로 그렇게 쉽게 충족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교수요원으로 충족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면서 그 大學의 요구에 적합한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時間講師에만 의존하려는 大學이 없어야 할 것이다.

校勢를 파시하는 건물

시설의 확충 또한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國立大學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 수 있으나 학생들의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私立大學의 경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확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大學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강의실과 연구실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시설들은 부족하면서도, 校勢를 파시할 수 있는 건물들이 지나치게 웅장하고 호화롭게(筆者가 보기에) 건설된 것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훌륭한 시설을 갖춘 모든 건물들이 敎育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겠으나 빈약한 강의실이나 연구실 또는 도서관의 개선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校勢를 파시하려는 외형적인 치장보다 이제는 大學의 本質이랄 수 있는 훌륭한 敎育現場, 質的인 內實을 꾀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끝으로 끈적거리는 장마철의 무더위, 방학중임에도 大學評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敎授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이 글은 본 협의회에서 42계 종합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84년도 대학평가(84.7.2~7.16)의 현지 방문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필자가 그 체험담으로 쓴 것이다.